



광주·전남 암 발생 10% 늘었다...갑상선·폐암 최다

화순전남대병원 '암 발생·생존율 통계'...2021년 1만8천791명
코로나 이후 검진 증가 여파...최근 5년 '상대 생존율'은 상승

2021년 광주·전남지역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갑상선암이, 전남에선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지역암등록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2021년 암 발생률 및 생존율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광주·전남 암 발생자 수는 1만8천791명(남성 9천938명·여성 8천8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만7천83명(남성 9천274명·여성 8천559명) 대비 약 10% (1천708명) 증가한 수치다. 광주는 636명, 전남은 1천727명으로 각각 9.8%, 10.1%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 10.8%보다는 폭이 크지 않다.

병원 측은 암 발생 증가의 원인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발견되지 못했던 암 발생자가 이듬해 검진으로 뒤늦게 드러난 여파 등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0년에는 국가암 검진 대상 6개 암종의 발생률이 2019년 대비 최대 1

8.2% 감소했지만, 2021년엔 2020년보다 암종 별로 최대 17.7% 증가했다.

광주는 2021년 7천113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갑상선암이 15.5%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10.9%), 대장암(10.5%), 폐암(10.3%), 위암(10.1%), 전립선암(6.3%) 등의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폐암이 1위였고 전립선암과 위암이 뒤를 이었다.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순으로 발생이 많았다.

같은 기간 전남은 1만1천678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폐암이 1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위암(11.2%), 대장암(10.9%), 갑상선암(10.8%), 전립선암(7.6%), 유방암(7.4%) 등의 순이다.

남성은 폐암, 전립선암, 위암 순으로,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순으로 암 발생이 많았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전국과 비교해 갑상선암과 폐암 발생률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16년 이후 전국적으로 유방암이 발병 1위인 반면, 광주·전남에서는 갑상선암이 1위로 나타났다.



"5월 정신 배우러 왔어요"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9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옛상무대 영창)을 찾은 학생들이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게 끌려온 시민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김애리 기자

광주·전남 암 환자의 최근 5년(2017-2021년)간 상대 생존율은 광주 73.7%(남성 67.7%·여성 79.5%), 전남 66.6%(남성 61.8%·여성 72.4%)로 10여년 전(2006-2010년)과 비교할 때 광주는 4.4%p,

전남은 6.7%p 각각 상승했다. 전국 5년 상대 생존율(남자 66.1%·여자 78.2%) 대비 광주는 남녀 모두 높고, 전남은 낮았다.

화순전남대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암 발생자 수가 일시 감소하면서 통계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는 다시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수희 기자



KBO 첫 '10홈런-10도루' 김도영, 시즌 첫 월간 MVP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3-4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

기사단 투표 총 30표 중 23표(76.7%), 팬 투표 44만8천88표 중 2만16천76표(5.27%)로 총점 6471점을 받은 KIA 김도영은 기사단과 팬 투표에서 모두 압도적인 득표로 총점 1516점의 2위 최정을 제치고 3-4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

김도영은 개막 후 약 한 달간 3경기에 출장해 4안타(3위), 10홈런(공동 3위), 2득점(2위)을 기록했다. 또 장타율 0.638(2위), 26타점(공동 4위) 등 타격 지표 전반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KIA의 선두 질주에 기여했다.

데뷔 3년차인 김도영은 무서운 타격감을 보이며 올 시즌 시작을 알렸다. 4월9일 광주 LG전에서 5타수 4안타를 기록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안타를 치며 19경기 연속 안타로 4월을 마무리했다. 연속 안타 기록은 5월1일까지 20경기로 마감됐다.

또한 지난 4월21일 광주 NC전에서 도루를 추가하며 월간 10도루를 달성한 데 이어, 25일 고척 키움전 홈런포로 4월 10홈런을 완성해 KBO 리그 최초의 월간 10홈런-10도루를 달성했다. KIA 소속 선수의 월간 MVP 수상은 2022년 7월 월간 MVP를 수상한 이창진 이후 약 2만만이다.

3-4월 MVP로 선정된 김도영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트로피가 주어지며, 신한은행 후원으로 모교인 광주동성중학교에 선수 명의 기부금 200만원이 전달될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

尹 "저출생·고령화 대비 '저출생대응부'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등 4곳서 '민생토론회' 재개 방침 밝혀
"지역 균형발전 관련 일관된 3개 원칙 유지"
"공공기관 이전, 지역 특성 맞춰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전남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정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4·6면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광

주·전북·경북·제주에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 자신의 평소 지론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일관되게 3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며 "첫째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 등으로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물론 없는 것보다 도움은 되지만,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의 특성, 또 산업 특성 이런 것들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 기자

블루 이코노미 BLUE ECONOMY

광주매일신문 33

세계로 우비하는 데도 앞선! 전남 행복시대

지구를 위한 선택, 청정수소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